

먼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신약성경의 정의

롬14:22

공지한 대로 지난주부터 2달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시리즈 설교 전체 시리즈 핵심: 과거의 죄, 수치, 더러움, 악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서 생긴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된다. 그러므로 이 전 과정은 성화이다.

지난주, 양심의 기원, 창세기 3장 사건, 죄, 양심 발동, 수치, 남 탓, 죄 가리기, 하나님의 개입 오늘 < >, 양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약성경에 따라 정의를 내리려 한다.

그래야 양심을 가다듬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은 교육 설교, 오늘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적용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으로 푸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성경에 따라 정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양심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경대로 바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양심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는 일

여기에서 분리가 나온다. 분별이 나온다. 분리와 분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우리는 근본주의자, 분별하고 구분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선과 악의 문제: 바울의 고통: 롬7:18-19, 21, 24

(*) 미국 사람들의 표현, 쇼올더 앤젤, 쇼올더 데몬

(*) 해라. 하지 말라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육체의 아픔,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마음과 정신과 영의 아픔을 느낀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 유지(롬14:22)

이 양심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하는 능력과 비슷하다.

큰일 악한 일 좋은 일, 심지어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양심

그리스어 수나이테시스(4893), ‘공통된 지각’, 즉 도덕적 의식, 양심, 31회, 신약성경에만

구약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음. 양심의 개념은 있지만

오늘 처음부터 살펴보려 한다. 그러면서 양심과 연결된 단어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면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차문: 연다, 닫다, 부수다, 차다, 찌그러뜨리다, 도색하다. 흠집을 내다, 닦다.

(*) 양심(Conscience): OED: 사람 내부에서 의식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의식(conscious)

1. (요 8:9, 킹흠정)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convicted by their conscience, 양심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죄를 깨달아, 유죄가 입증되어, 의식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알게 됨

2. (행 23:1, 킹흠정)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지금까지 내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른 결과이다. 죄의식이 없다.

3. (행 24:16, 킹흠정)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 의식 속에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적이 없다.

4. (롬 2:15, 킹흠정)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방인들의 양심은 증인이다. 양심은 도덕적 기준들에 대한 의식, 그 양심이 의식 속에서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그들의 생각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유죄, 혹은 변명
5. (롬 9:1, 킹흠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의 양심은 성령님을 통해 그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증언한다. 의식 속에 거짓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6. (롬 13:5, 킹흠정)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국가의 권력자들(법),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은 우리를 정죄한다.
- 7-8. (고전 8:7, 킹흠정)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으므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을 의식한다. 여기도 conscience, 약한 양심(민감도가 높은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다. 죄의식이 남아 있다.
9. (고전 8:10, 킹흠정)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양심은 담대하게 될 수도 있다. 민감도가 둔하게 된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
10. (고전 8:12, 킹흠정)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역지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담대하게 하면(민감도를 떨어지게 하면) 죄를 짓는다.
11. (고전 10:25, 킹흠정)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12. (고전 10:27, 킹흠정)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나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13. (고전 10:28, 킹흠정)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14. (고전 10:29, 킹흠정)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고기 문제, 의식하지 말고 먹어야 할 때가 있다(25, 27), 묻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러나 먹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28-29).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의식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15. (고후 1:12, 킹흠정)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의 의식 속에는 단순함, 진실함... 했음이 확실하다.
16. (고후 4:2, 킹흠정) 『[우리는]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드리어 진리를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우리는 각 사람의 의식 속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너희의 의식 속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벗는 사람들이다.
17. (고후 5:11, 킹흠정)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그들의 의식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 가 있다.

18. (딤후 1:5, 킹흠정)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선한 양심, 자기의 도덕적 법규를 지키므로 의식에 위배되지 않는 것
19. (딤후 1:19, 킹흠정)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선한 양심, 그러므로 악한 양심, 믿음에 파선한다.
20. (딤후 3:9, 킹흠정) 『집사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도덕적 의식이 순수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1. (딤후 4:2, 킹흠정)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이 지져져서 민감성이 없다. 기능을 못한다. 죄의식이 없다.
22. (딤후 1:3, 킹흠정)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역시 딤후 3:9와 마찬가지로
23. (딤후 1:15, 킹흠정)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더럽혀진 양심,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24. (히 9:9, 킹흠정)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구약 시대 예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죄들의 정죄를 깨끗이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25. (히 9:14, 킹흠정)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죄들의 정죄를 깨끗이 제거한다.
26. (히 10:2)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conscience of sins, 죄들에 대한 양심이 아니라 의식, 즉 짐승 희생은 죄들에 대한 의식을 제거하지 못한다.
27. (히 10:22, 킹흠정)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 뿌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즉 죄들의 의식에서 벗어난다.
28. (히 13:18, 킹흠정)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양심,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을 의식하며 산다.
29. (벧전 3:16, 킹흠정)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30. (벧전 3:21, 킹흠정)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양심에 대한 요약

1. 긍정적인 표현

1. 깨끗하다는 측면에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2. 양심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2. 부정적인 표현
 1. 약한 양심
 2. 상한 양심
 3. 더럽혀진 양심
 4. 죄를 짓도록 담대해진 양심
 5. 약한 양심
 6. 인두로 지져진 양심: 무감각

양심이 하는 일

1. 증언한다. 우리의 일을 승인한다.
2.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판단한다.
3. 사람을 어떤 식으로 행하도록 이끈다.
 1. 양심의 증언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고소하게도 하고 변명하게도 한다.
 2. 권위에 순종하게 한다.
 3. 고기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함
 4. 다른 사람이 알려주었으면 그를 위해 먹지 말라고 함

양심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의

정의: 당신이 옳다고 믿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식, 알거나 느끼고 있는 것

1.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왜? 당신이 옳다고 믿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이 진짜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다.
 (*) 서로의 양심이 다른 그림,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이 깨끗해 라고 말해도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왜?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어떤지 모르므로
 동성애에 대한 무감각, 나는 양심이 깨끗해, 나는 아니야.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
2. 양심은 변할 수 있다. 당신의 양심은 어떤 시점에 당신이 옳다고 믿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의식
3. 양심은 안내하는 역할, 살펴보고 심판하는 역할

안내하는 역할: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내다보고 경고함, 바르게 하라고 말함
 살펴보고 심판하는 역할: 당신이 악한 행동을 할 때 당신을 고소한다, 당신이 옳은 것을 하면 칭찬한다.
 다시 말한다.
 양심이란 당신이 옳다고 믿거나 그르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식
 행23:1,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한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때에도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양심에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다.
4.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1.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가?

(*)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가? 그림
 A와 B 모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5. 우리와 양심의 민감도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믿음 생활하는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다 생각이 다르다. 롬14장: 음식, 날, 성경 해석

결론

(*) 양심(Gewisse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결합에서 나온다. 즉 양심은 우선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심은 첫째로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 '함께', 둘째로는 타자와 '함께', 셋째로는 절대자와 '함께'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서려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맞는지 정확히 의식해야 한다.

이런 의식 즉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시119:11).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성령님의 증언: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신다(요16:8).

이 증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점점 더 투명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나온다.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내 양심이 비뚤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인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성도들과 부대끼며 깎여야 한다. 그래서 순수한 양심 유지가 가능하다.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의 소유자가 된다.

이것이 행24:16가 말하는 것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딤편1:19의 사람이 된다.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

롬14:22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